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38회)

제10편 소사신앙촌 시대 제1부

- 제 10편
- 소사신앙촌 시대 제1부
- 一. 신앙촌(信仰村)이란?
- 二. 첫째신앙촌 · 소사신앙촌 · 첫째올타리
- 1) 소사신앙촌
- 2) 소사신앙촌이 건설된 장소
- 3) 소사신앙촌 생활
- 4) 영모님이 세운 하늘의 법안에 쓰러져나가는 신앙촌사람들
- 5) 노구산 집회 기우제
- 6) 소사신앙촌의 호사다마(好事多魔); 영모님의 구속과 4.19혁명
- 7) 영모님의 구속 동기
- 8) 영모님의 재판
- 9) 불법적으로 영모님을 처단시도
- 10) 마귀당 총회(總會)를 결성하다; 모세를 모반한 고라당
- 11) 끝같은 영모님의 석방
- 12) 교단체제를 정비하시는 영모님
- 13) 동아일보 사건
- 14) 영모님 2차로 또 구속되시다

14) 영모님 2차로 또 구속되시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영모님은 1960년 3월 26일 출옥하신 후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운 일을 겪으셨다. 영모님은 하늘의 뜻을 이루시러 오신 특별한신 분이다. 영모님은 전국을 다시 순회하시기 시작하셨다. 가시는 곳곳마다 뽕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역천자는 망한다는 것이다.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어떤 세력도 어떤 집단도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하신다는 설교말씀을 강하게 강조하시면서 다니신 것이다. 그 당시 영모님이 강조하시면서 설교하신 성경구절은 다음과 같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이 돌이 그위에 떨어지는 자는 가루가 되어 흩어지리라(마 21:44)" 이 성경구절을 강조하시면서 천하의 어떤 세력도 이 하늘의 역사를 가로막으면 이 성경구절처럼 깨어지고, 가루가 될 것임을 강하게 강조하시면서 순회를 하셨다.

새로 들어선 장면 정권에서 영모님에 대한 이상한 검색이 감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영모님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없기를 바라시면서 강하게 말씀을 던지시고 계신 것이다.

전국을 두 번 정도 순회하셨을 때 영모님이 예측한 바와 같이 장면정권은 영모님을 '부정선거 위반'으로 1961년 1월 27일 구속하였다. 죄명이라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다. 자유당 정권이 선거를 할 때에 영모님은 구속되어 서대문 형무소에 구속수감되어 계셨기 때문에 어떤 지시를 내릴 수 없었다. 그런데 영모님이 부정선거를 하였다는 죄명으로 구속을 시킨 것이다. 더욱 황당하게 생각되는 것은 부정선거를 했다면 자유당 시절,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했을 터인데 그들은 뒷전에 두고 형무소에서 형무생활을 하시던 영모님을 부정선거단속법을 적용시켜 장면 정권이 들어선 후에 제1호로 구속시킨 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좋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어떻게 부정선거를 주도한 자유당 거물들은 뒷전에 두고 억울한 종교인인 영모님을 장면 민주당정권 수립 후 제1호로 구속을 시킨단 말인가?

어떻든 이러한 이유로 영모님은 2차로 옥중에 수감되시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어떤 변호사는 바티칸과 교감이 있었는데 말을 하기도 하였다.

신앙촌과 전국 전도관 교인들은 정말 기가 막혀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자유당 정권에서 풀려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민주당 정권에 의해서 구속을 당하니 다들 정말 실의에 빠지다시피 하였다. 신앙촌의 공장들도 회복되어 다시 가동을 시작할 즈음에 다시 영모님이 구속이 되신 것이다.

장면 정권에서는 민주당 수립 후 제1호로 영모님을 구속시킨 후 자유당 정권에서 부정을 많이 한 정치인들을 비로소 구속시키기 시작을 하는 것이다.

이때에 영모님이 구속되어 수감되어 계신 서대문 형무소에서 일어난 감동적



박태선 장로님의 구속을 다룬 동아일보 1961. 12. 27. 기사

인 일화를 소개하겠다. 자유당정권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거물급 정치인들이 계속 구속을 당하는 중에 자유당 정권이 4.19 학생 켈기로 무너질 때에 마지막 내무부장관을 한 최 모 장관과 영모님에 관한 일화다.

옥중에서 만난 최인규 내무장관과의 에피소드

최인규 내무부장관은 나이가 아주 젊은 사람으로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미국 유학을 다녀온 영어도 잘하는 당시의 인정받던 엘리트였다. 이 사람이 데모로 혼란에 빠져 있는 자유당 끝판에 내무부장관에 임명되었다. 이 사람은 젊은 사람답게 몸을 내던지는 스타일로 열정적인 내무장관 역할을 하려고 애를 썼다. 데모하는 학생들과 대화도 하고 무너진 치안 질서를 바로 잡으려 애를 썼다. 그런데 데모하는 학생들에게 발표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실 최 장관은 뜻밖이었다. 자기는 단연코 발표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런데 전 경찰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자유당 정권이 무너진 후에 최 내무장관도 구속이 되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데모하는 학생들에게 발표명령을 한 당사자로 죄명을 쓰고 구속된 것이다. 최 내무는 변명을 하지 않고 다 자기의 책임임을 자인하였다. 결국은 사형언도를 받았다.

그런데 이렇게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최 내무는 같은 서대문 형무소에 박태선 장로가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수들을 통해서 전해들었다. 최 내무는 평소에도 박태선 장로에 대한 말을 많이 들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그래서 평소에도 박 장로님에 대해서 말을 많이 들으면서 시간을 내서 꼭 한번 그분의 집회에 참석을 해보려고 하였었다. 그러나 최 내무의 업무가 그와 같은 시간을 할애해 주지를 않았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박 장로님을 사모하고 있었던 그였다. 단에서 목사들은 박 장로를 이단이라고 야단을 하고 있었지만 그 말을 끝이 듣지를 않았다. 자유당 시절 박 장로님이 구속되었을 때

에도 억울하게 하늘의 사람이 수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분이 이 서대문 형무소의 감방에 같이 있다고 하니 최 내무는 마음이 설레임을 느꼈다. 그래서 최 내무는 간수들에게 간청을 하여 박 장로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였다. 평범한 사람도 아닌 내무장관을 했던 사람이니 어지간한 일들은 모른척하고 다 들어주곤 하였다. 그래서 이번 부탁도 면회를 나갔다가 들어올 적에 박 장로님 감방이 있는 쪽으로 데리고 갔다.

박태선 장로님을 사모하는 최 내무 장관

그곳에서 최 내무는 "박 장로님! 저는 죄아무개입니다"라고 인사를 하였다. 영모님은 최 내무를 바라보시더니 "아! 그러세요. 이런 곳에서 만나서 안 됐습니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최 선생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최 내무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라고 울면서 부탁을 드렸다. 영모님은 "안심하세요. 약속할게요"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최 내무는 눈물을 흘리면서 영모님께 공손히 인사를 드리고 자기 감방으로 돌아왔다.

이후부터 최 내무의 형무소 감방생활은 180도 바뀌었다. 면회 오는 부인에게 찬송가와 성경책을 넣어 달라고 하여 열심히 성경을 보고 찬송을 끊이지 않고 불렀다. 그리고는 매모 쪽지를 영모님께 보내어 "제가 어떤 성경을 읽으면 좋겠습니까? 또 어떤 찬송을 불렀으면 좋을까요?"라고 문의하면 영모님은 성경 어떤 곳을 읽으라고 알려주시고 찬송가도 어떤 찬송을 부르라고 알려주며 최 내무는 하루 종일 그 성경구절과 그 찬송가만 열심히 부르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었다.

그와 같이 하던 최 내무는 간수에게 박 장로님이 무엇을 잡수시는지 물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간수는 매일 메뉴가 같지 않다고 하니가 그러면 매일 매일 박장로님이 잡수시는 메뉴를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결국 간수들이 박 장로가 오늘은 사과를 드셨다고 알려주면 즉시로 면회오는 부인에게 사과를 사서 넣어달라고 부탁을 한다. 또 하루는 영모님이 삶은 계란을 잡수셨다고 알려주자 즉시로 삶은 부인에게 사과를 사서 넣어달라고 부탁을 한다. 이와 같이 최 내무는 영모님이 잡수시는 것과 하루 동안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소상하게 묻고는 영모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판을 받으러 갈 때는 영모님 감방에 들러서 "장로님! 오늘 재판 받으러 갑니다"라고 알리고는 갔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역시 영모님 감방에 들러서 "장로님! 재판 받고 왔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는 자기 감방으로 갔다.

그런데 하루는 재판을 받고 와서 영모님 감방 앞에 선 최 내무는 눈물을 흘리면서 "장로님, 저 오늘 사형선고를 받고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영모님은 "최 선생, 내가 최 선생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라고 하였다.

결국 최 내무가 사형집행 당하는 날이 왔다. 얼굴에 병거지를 쓰고 영모님 감방에 나타난 최 내무는 "장로님, 저는 오늘 갑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날은 눈물도 흘리지 않고 웃음을 얼굴에 띄우면서 영모님께 큰 절을 올리는 것이다. 영모님은 "최 선생, 안심하세요. 최 선생의 생명은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안심하시고 편안히 갈 거세요"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영모님의 말씀을 사석에서 듣고는 필자는 매우 큰 감동을 받았다.*

격암유록 신(新)해설 제4회

정도령은 소사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十二門開大和門 십이문개대화문
日月明明光輝城 일월명명광휘성
美哉此運弓乙世 미재차운궁을세
白日昇天比比有 백일승천비비유
田中生涯雅清曲 진중생애아청곡
不知歲月何甲子 부지세월하갑자
欲識雙弓脫劫理 욕식쌍궁탈겁리
血脈貫通喜樂歌 혈맥관통희락가
欲識蒼生安心處 욕식창생안심처
三豐兩白有人處 삼풍양백유인처

열두 문이 활짝 열려 기운이 막힘없이 통하니 대화합(大和合)의 문이요, 영원 무궁토록 온화한 봄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화평하고 밝고 밝은 광채가 빛나는 성이로다. 아름답구나! 이 중천의 운, 궁을(마귀를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상이여! 눈부시도록 흰 해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 같구나. 마음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는 가운데 우아하고 청아한 노래 소리 들리니 영원으로 세월 가는 줄 모르겠구나. 궁궁(弓弓)의 이치를 깨닫고 영생하려면 피가 잘 통하고 맥박이 잘 뛰도록 힘차게 박

수치고 큰 소리로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 곳을 찾아가라. 창생들이 안심할 곳을 알려면 화우로(火雨露) 삼풍(三豐) 감로를 내려주시는 양백(兩白) 정도령을 찾아가라.

錦城錦城何錦城 금성금성하금성
金白土城漢水邊 금백토성한수변
鷄鳴龍叫何處地 계명용규하처지
邑者溪邊是錦城 읍자계변시금성
鷄龍鷄龍何鷄龍 계룡계룡하계룡
紫霞仙中金鷄龍 자하선중계룡
非山非野吉星地 비산비야길성지
鷄龍白石眞鷄龍 계룡백석진계룡
十勝十勝何十勝 십승십승하십승
勝利臺上眞十勝 승리대상진십승

금성, 금성 하는데 어디가 금성인가? 금백토성으로 한강가에 있느니라. 금성(錦城)의 의미는 아름다운 곳이라는 뜻이다. 금백토성(金白土城)은 금성의 파자이며 금은 영원불변으로 금산(金山), 영생체(永生體), 금강불괴지신(金剛不壞之身), 백(白), 가을, 중천의 뜻이 있다.

토성은 중앙무기오십토(中央戊五十土)로서 마귀를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며 한강변에 금성이 있다는 말이다. 닭이 울고 용이 울부짖는 그곳은 어디인가? 정도령이 계신 한강변에 있으니 곧 금성(아름다운 곳, 천당)이다. 읍자(邑者)는 도(都)자의 파자이며 도읍(都邑)이란 말이니 하늘나라 임금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계변(溪邊)은 시냇가이니 한강 가란 말이다. 한강가에 금성이 있다는 뜻이다.

계룡 계룡하는데 무엇이 계룡인가? 자쫓빛 노을 신선세계의 금계룡이다. 금(金)은 금백토성의 금이다. 산도 들도 아닌 길한 별이 비치는 곳이요 계룡백석이 진짜 계룡이다. 마귀를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신 진인 정도령은 백석(白石)이라는 의미를 가진 지역(한강가)에서 하늘의 역사를 하고 계신다. 백석은 소사(素砂)를 의미한다. 흰 소(素) 모래 사(砂)이다. 사(砂)는 작은 돌이니 결국 흰 돌 즉 백석(白石)이 된다. 정도령은 소사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소사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정도령이

아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긴자에게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쓴 이름이 있나니 받는 자에게는 알 자가 없다.(계시록 2:17) 십승 십승하는데 무엇이 십승인가? 승리대 위에 계신 분이 진짜 십승이다.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신 분이 진짜 십승이라는 말이다.

兩白兩白何兩白 양백양백하양백
先後天地是兩白 선후천지시양백
心靈依白眞兩白 심령의백진양백
三豐三豐何三豐 삼풍삼풍하삼풍
非山非野是三豐 비산비야시삼풍
世人不知火雨露 세인부지화우로
無殺大豐是三豐 무곡대풍시삼풍

양백 양백하는데 무엇이 양백인가? 선천과 후천이 양백이다. 양백은 하도용마(태백) 낙서영구(소백)의 역수(易數)가 양백이요 몸과 마음이 눈보다 더 희고 깨끗하니 참된 양백이로다. 양백에서 진인 정도령이 나오는 것이다. 삼풍 삼풍

하는데 무엇이 삼풍인가? 산도 들도 아닌데 불, 비, 이슬임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구나. 곡식 없이도 대풍이니 곧 삼풍이로다. 화우로(火雨露)는 세상의 불, 비, 이슬이 아니고 마귀를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신(하나님의 빛)이다.

弓乙乙乙何弓乙 궁을궁을하궁을
天弓地乙是弓乙 천궁지을시궁을
一陽一陰亦弓乙 일양일음역궁을
紫霞仙人眞弓乙 자하선인진궁을
牛性牛性何牛性 우성우성하우성
天道耕田是牛性 천도경전시우성
牛性在野牛鳴聲 우성재야우명성
天牛地馬眞牛性 천우지마진우성

궁을 궁을 하는데 무엇이 궁을인가? 천궁 지을이 궁을이다. 일양일음(一陽一陰)도 역시 궁을이다. 일양() 일음()은 십(十)자를 말한다. 자쫓빛 노을 속의 신선이 진짜 궁을이다. 우성 우성 하는데 무엇이 우성인가? 천도(天道)로서 마음 밭을 가는 것이 우성이다. 우(牛)자는 진인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우(牛)자 속에 십(十)자가 있다. 하늘의 말 즉 천마(天馬)가 땅으로 내려오면 지우(地牛)가 된다. 우성은 들에서 소 울음소리를 내나니 마음이 천지비(天地否)에서 지천태(地天泰)로 바뀐 즉 성령으로 거듭난, 천신이 하강한,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신 진인이 진짜 우성이다.

鄭氏鄭氏何鄭氏 정씨정씨하정씨
滿七加三是鄭氏 만칠가삼시정씨
何姓不知無裔後 하성부지무예후
一字縱橫眞鄭氏 일자종횡진정씨
海印海印何海印 해인해인하해인
見不知而火雨露 견부지이화우로
化學化學何化學 화자화자하화학
無窮造化是海印 무궁조화시해인

정씨 정씨 하는데 무엇이 정씨인가? 7+3=10(十)이 정씨이다. 무슨 성(姓)인지 모르며 후손이 없다. 일자종횡이 진짜 정씨이다. 일자종횡(一字縱橫)은 십(十)자이다. 해인 해인 하는데 무엇이 해인인가? 보고도 모르니 불, 비, 이슬(화우로-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의 성신 이요 빛)이다. 화자 화자 하는데 무엇이 화자인가? 무궁조화의 해인이다. 화우로 삼풍 해인에서 무궁조화가 나온다.*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